

운행 횟수·좌석 수 경부선과 큰 차…호남선은 ‘홀대선’

KTX 개통 21주년…호남선·전라선의 현실은



남현승(여·26)씨는 주말 서울 나들이를 갈 때면 일부러 KTX가 아닌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습관이 됐다. 온라인으로 KTX를 예매하려 할 때마다 표가 온통 매진돼 있으니 도저히 KTX를 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남씨는 “티켓을 사기 위해 코레일톡 앱에 들어가보면 주말은 거의 100% 매진”이라며 “나들이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차라리 느리더라도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던 박정빈(17)양은 광주행 기차를 놓치고 각자 차편을 구해 내려왔다. 급하게 다시 예매를 하려고 해도 빈 좌석이 있는 열차가 없어서 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박양은 “서울에서 광주를 오갈 때는 적어도 2주 전에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표를 구할 수가 없다”며 “제 때 예매를 못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만 빼고 따로 서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KTX가 1일 개통 21주년을 맞았지만 호남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선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을 통과하는 KTX 수요가 급증하는 데 열차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역민 불만이 팽배하다.

지역사회에서는 21년 간의 KTX 수요 변화를 고려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KTX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송정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8504명(2021년)→1만1444명(2022년)→1만3322명(2023년)→1만3911명(2024년)→1만3809명(2025년) 등으로 지속 증가세다.

목포역 이용객 또한 3217명(2021년)→4235명(2022년)→4688명(2023년)→4769명(2024년)→4867명(2025년)으로 늘었다.

반면, 열차 운행횟수는 한참 모자랐다. 광주송정역 이용객 중 KTX를 탑승한 승객 수는 하루 평균 7815명(2024년 기준)이지만 KTX 운행 횟수는 단 46회에 그쳤다.

하루 평균 5717명이 이용한 울산역에서 KTX를 하루 71회씩 운행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동대구역(이용객 1만4152명·하루 156회)과 비교하면 무려 110회나 운행 횟수가 적었다.

절대적인 열차 수가 부족하다보니 운행 간격도 차이가 벌어졌다. 주말 기준으로 광주송정역의 KTX 운행 간격은 48분으로 동대구역(12분), 부산역(19분) 등에 비해 3~4배 길었다.

송정역 하루 평균 탑승객 7815명

운행 횟수 46회 그쳐 표구하기 전쟁

동대구 156회·울산 71회와 대조

목포역 4867명 이용 날로 증가세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호남선 운행 확충은 빠져있고

전라선 굴곡 많아 고속철 무색

열차 공급 확대·선형 개량 등 시급

또 광주송정역에는 고속열차 중 좌석 수가 가장 적은 ‘KTX-산천’(379석)이 편성된 점도 이용객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산천 비중이 무려 48%에 달하다보니 동대구역(8.3%), 부산역(8.4%) 등에 비해 좌석 수가 압도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의지도 대책 마련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는 호남선 운행 확충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 경부선의 경우 SRT 병행, GTX 등 수도권 연계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2015년부터 KTX로 하루 1만 3900여명의 승객을 나르며 광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송정역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

또 지역에서는 전라선 고속화를 여수·순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종권 해안벨트 전반의 관광·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사업으로 보고,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호남선과 전라선 등에서 고속철도 수요가 높아졌음을 인식하고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경철 송원대 철도안전경영학과 교수는 “호남권은 고속철 수요가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여전히 열차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표를 못 구한다’는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다. 지역 연결성 강화를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한 호남권 관련 사업이 하루 빨리 착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재판 과정서 드러난 국립광주과학관 직원들 추태 보니

브로커 등과 짜고 역대 부당이득 챙기고 직원이 제대로 인사 하는지 CCTV 감시

계약 업체에게 뇌물을 뜯고 부하 직원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는 지 CCTV로 감시하는 상사들.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국립광주과학관 직원들이 저지른 추태다.

2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 심리로 열린 ‘광주과학관 납품비리’ 공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경영지원본부장, 홍보실장, 시설안전관리팀 소장 등 임원들의 부끄러운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 임직원은 계약 브로커 4명, 납품업자 3명, 브로커 등과 짜고 수년간 관급자재 계약에 개입해 조달 시스템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는 게 검찰 설명이

다. A씨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20~2023년 사이 이 발주한 계약 체결 대가로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도 사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드러났다. 본부장의 경우 직원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며 종합방재실 CCTV 영상 자료를 마음대로 열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당국의 확실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혐의

임미란 광주시의원 송치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광주시의회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달 31일 사기업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보성군의 한 여업 회사에게서 받은 법인카드로 14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준 데 대한 채무 변제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배달노동자·소상공인 “공정앱 우선 배달합니다”

과도한 민간 앱 중개수수료 반발

라이더·소상공인연합회 등 회견

저조한 공공앱 이용 늘어날지 주목

광주 배달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지원 단체들이 공정앱 우선 배달을 선언했다. 민간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가 과도한 데 따른 반발로, 저조한 공공배달 앱 이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광주 라이더 연합회와 광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등은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배달앱의 불공정한 체계 변경에 대응하는 ‘공정 배달’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 배달앱 측은 수수료를 낮췄다지만 기본 배달 팁 인상과 정액제 철수 등 인화가 의미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맹점의 순이익을 더욱 낮아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한 수수료 구조와 배달비 부담 문제는 소비자 부담 증가로도 이어져 지

역 사회 차원에서 연대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연대 선언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와 배달비 구조 확립, 배달 노동자 안전 보장 등 배달 생태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광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한국외식업 중앙회 광주시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광주 북구 골목형 상점가 연합회, 광주경제진흥원 상생일자리재단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